



돌단풍 / *Mukdenia rossii* (Oliv.) Koidz.

| 구분   | 설명   |
|------|------|
| 생물분류 | 식물   |
| 속국명  | 돌단풍속 |

|      |  |
|------|--|
| 과국명  | 범의귀과   |
| 과명   | Saxifragaceae  |
| 일반특징 | <p>요약설명 : 범의귀과 여러해살이풀로 충청도를 기준으로 한 북쪽 지역에서 자란다.</p> <p>분포지역 : 충청도 이북지역에서 자란다.</p> <p>형태 : 여러해살이풀</p> <p>크기 : 꽃대의 높이는 30cm정도로 자란다.</p> <p>꽃색 : 백색, 붉은색</p> <p>개화기 : 5월</p> <p>잎은 뿌리줄기의 끝이나 그 근처에서 1~2개씩 비늘잎에 싸여 나오지만 여러 개가 한 곳에서 나온 것처럼 보인다. 긴 잎자루 끝에 5~7개로 갈라진 손모양겹잎이 달린다. 갈라진 잎은 달걀 모양 또는 긴 달걀 모양이며 예첨두이다. 가장자리에는 작은 톱니가 있고 털이 없으며 겉면에는 윤기가 난다. 잎은 황록색 또는 연한 초록색으로 신선한 느낌을 주며, 가을에 단풍이 예쁘게 든다.</p> <p>꽃대는 잎이 없고 5월에 비스듬히 자란다. 꽃은 하얀색 바탕에 약간 붉은 빛이 돌며 원뿔모양꽃차례를 이룬다. 꽃받침조각, 꽃잎 및 수술은 각각 6개이다. 꽃받침조각은 달걀 같은 긴 타원 모양이고 예두이며, 하얀빛이 돈다. 꽃잎은 달걀 같은 창 모양이며 예두이다. 이것은 꽃받침보다 짧고 꽃받침과 더불어 뒤로 젖혀진다. 수술은 꽃잎보다 약간 짧으며 1개의 암술이 있다. 씨방은 반만 꽃받침 밑에 있으며 방이 2개이다.</p> <p>열매는 삭과고 달걀 모양이다. 꽃핀 뒤에 생겨나 익으면 2개로 갈라지는데, 그 속에 씨앗이 많이 들어 있다.</p> <p>뿌리줄기는 굵고 잔뿌리가 드물게 나 있으며 갈색의 비늘 모양 잎으로 덮인다.</p> <p>주로 깊은 산, 개울 주변의 바위틈에서 자란다. 햇빛이 필요하며 건조에 강하다. 지붕이 없는 보통 땅 위에서 겨울을 나고 자라며 여러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은 보통이다. 9월에 포기나누기를 하거나 6~7월에 잎과 잎자루를 조금 붙여 강모래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번식시킨다.</p> |